



한국의 RC - “차이, 그 분명한 차이”



리차드 슬랙

- 한국RC협의회 부회장
- 삼성석유화학 수석부사장

Richard A. Slack,

- Vice Chairman of KRCC
- Executive Vice President of Samsung Petrochemical Co., Ltd.

1999년 12월 6일, 희망찬 팡파레 속에 한국RC협의회가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야흐로 한국이 화학 제품 제조의 기술적인 중요성과 유통 산업에 있어서 운영상의 우수성을 인지하였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한국RC협회의 설립이 자율규제와 RC 관리코드에 따른 지속적 개선을 약속하는 한국적 경영의 강력한 지도력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KRCC 부회장이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화학분과 공동회장으로서 저는 한국RC협의회 동료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과 탁월한 역량에 매우 감사 드리며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RC의 이념은 바로 이 강력한 리더십과 참여를 통해 화학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우리의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이며, 나아가 고객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주주들이며,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RC의 모든 관리코드를 부족하거나 치우침 없이 우수하게 달성해 내도록 하는 것이 KRCC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 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코드에 특히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 어느 한 코드에 중점을 두려 하나요 의아해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KRCC의 활동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분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생명을 구한다면 또는 하나의 중대한 상해를 피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차이, 그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으며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낼 KRCC 리더십에도 함께 하고 있음에 더할 나위 없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진의 역량만큼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고,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CEO의 간단하지만 명료한 환경 안전에 대한 제시, 환경 안전의 중요성이 제품의 생산이나 어떠한 명분적이며 이론적인 측면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전달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그 어떤 경영진의 노력보다도 이익을 배가하고도 남을 잠재적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역할에 있어 강력한 CEO의 리더십은 어느 회사라도 걸출한 경영 성과를 이룩하도록 합니다. 모든 관리팀과 감독라인이 안전 수행에 책임지도록 하는 CEO는 근로자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며 근로자 한 사람마다 그들의 안전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CEO가 보여준다면 근로자들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환경 안전 사업에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효과가 없다는 낡은 사고는, 형편없는 경영과 더 나아가서는 실패한 회사들의 고루하고도 구시대적인 변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KRCC에서 개발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코드는 각 회원사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13개 실행지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침이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각사의 현재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미달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나가기 위한 세부 활동 내용이 조직되었습니다. 13개 실행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보건 방침 및 자원 확보
- 근로자의 참여
- 협력업체 관리
- 안전보건 프로그램
- 작업환경관리
- 건강관리
- 안전설계 및 변경 관리
- 안전보건장치의 사용
- 예방점검 및 정리정돈
- 재해를 분석
- 보안관리
- 정보제공
- 교육 훈련



KRCC는 또한 제조시설에서 성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어떤 문서와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사례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속되어야 할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더욱이 장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완전한 의미로서의 이해가 서서히 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 각자가 완벽한 환경 안전에 대한 인식으로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교육과 함께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의 헌신을 요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환경 안전에의 충분한 이해에서 나타나는 업무태도와 이에 상응하는 행동양식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문서나 절차 등으로 지도자가 기대하는 안전한 성과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KRCC의 노력이 모든 회원사의 안전 행동과 성과에 있어 차이를 만들어 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KRCC 리더들이 그 분명한 차이를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확신하며, 또한 그 일원임을 영광으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번역 : 삼성석유화학 정옥영〉



제 3기 정기총회 개최

■ 한국RC협의회는 2002. 2. 26 오전 11시 호텔신라 영빈관에서 화학 및 환경안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노기호 회장은 화학산업이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회원사에 철저한 RC실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2001년도 및 2002년도 예결산, 회원사의 RC 로고마크 사용 허용, 임원개선 등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노기호 회장은 이정호 초대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RC를 도입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RCLG 가입과 4개 코드 작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인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 신임 임원 New Executives



• 이 균 철 부회장 (동서석유화학 사장)
Lee Kyun-chul, Vice Chairman
(President of Tongsoh Petrochemical Corp.,Ltd.)



• 우 상 선 이사 (삼성종합화학 공장장)
Woo Sang-sun, Director
(Plant Manager of Samsung General Chemicals Co., Ltd.)



• 정 범 식 이사 (호남석유화학 전무이사)
Chong Bum-shick, Director
(Senior Managing Director of Honam Petrochemical Corp.)



RC 실행 및 제조물책임법(PL)관련 설명회 개최

■ 한국RC협의회는 4월 9일 전경련 특 1회의실에서 RC코디네이터 및 환경안전 관련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행위원회 주최로 ‘RC 실행 및 제조물책임법(PL)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1, 2부로 나뉘어 오전 시간은 회원사의 RC 실천과 사업장 적용에 있어 애로사항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Peer Review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는데, 실행위원회의 허원준 위원장은 개회사와 함께 RC 추진현황과 금년도 실행위원회 활동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황무영 공동위원장은 “RC 추진 및 실행과 관련한 제언”을 통해 RC를 통해 환경안전에 대한 ‘문화’를 형성할 것과, 화학산업 공동의 노력이 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고, 대림산업, 한화석유화학, LG화학 등 Peer Review 회사는 RC 추진 과정과 경험을 설명하였다. 오후 시간은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제조물책임법(PL)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마련하여 주제발표 강사인 최병록 교수와 전현희 변호사는 화학산업의 대응전략과, 사법부의 PL법 적용 및 해석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어 바이엘코리아의 김범 이사는 RC를 통한 PL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제품전과정책임주의(Product Stewardship) 코드의 조기 도입을 제안·설명하였고, 한화석유화학의 최규동 부장은 자사의 PL 대응 준비 사례를 발표하였다.



지역확산(Outreach)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 화학산업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회복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인 지역확산 프로그램, 일명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2월 19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회의실에서 동부한농화학 정종구 전무주재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화학주간(가제)” 등의 행사를 열어 화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화학산업의 중요성과 환경안전에 대한 교육·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흥미롭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바이엘코리아를 비롯한 여러 회사에서 실행해 온 대외 활동 사례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였다.



RC 로고마크 출원

■ 한국RC협의회는 RC 로고마크에 대한 사용관리의 일환으로 로고마크를 상표 출원하였다. 로고마크의 보호(protection)는 RC 추진단체 업무의 기본사항 중 하나이다. 협의회는 로고마크의 상표 출원·등록으로 로고에 대한 관리와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회원사의 경우 로고의 사용으로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C 정착을 위한 화학산업의 협력과 상호지원

회원사의 Responsible Care 이행에 있어 애로사항을 토의하고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Peer Review가 지난 4월 9일 전경련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림산업, 한화석유화학, LG화학 등 이번에 RC 추진 사례를 발표한 3개사의 코디네이터와 함께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참석 : 김승원 팀장(대림산업), 임창희 팀장(LG화학), 최규동 팀장(한화석유화학)

◇ 사회 : 김영찬 팀장(한국RC협의회)

Peer Review...

김영찬 :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좌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처음 실시된 Peer Review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창희 : 이번 Peer Review를 통해서 환경·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전 회원사가 경쟁관계가 아닌 동반자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행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면 코디네이터가 RC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문사항이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규동 : Responsible Care 실행사례에 대한 Peer Review는 Responsible Care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회원사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Responsible Care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에 대한 상호 지원도 가능하리라 보고, 또 Peer Review 뿐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각 회원사의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회원사 모두가 Responsible Care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지요.

김승원 : 요즘은 정보 공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종의 업종에서 동일한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효과적인 추진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조직운영과 실천...

김영찬 : Peer Review가 회원사간의 교류와 정보공유의 장으로 정립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Responsible Care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근로자까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림산업과 LG화학, 한화석유화학에서는 Responsible Care 조직 운영과 실천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승원 : 대림은 기존의 EQHS 통합시스템이 공장을 중심으로 공장장이 위원장이 되는 체제였는데, Responsible Care 도입과 함께 적용 대상을 본사, 연구소를 포함한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하였고, 또 사업장별 운영위원회를 사업장장이 맡도록 하여 실질적인 Responsible Care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팀은 각 코드별 특성을 고려해서 현업부서장을 팀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위해 엔지니어 대리급 이상의 전문인력을 팀별로 3명씩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현실적인 평가체제를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최규동 : 한화석유화학은 RC를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새로운 추진 조직을 구성하기보다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과 위원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장 RC 운영위원회 역할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각종 위원회에서도 RC 코드별 추진팀의 역할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RC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현장 작업자들에게 강요될 경우 업무 부담으로 여겨져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RC 활동이 낯선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임창희 : 환경, 안전관련 이슈는 과거 사업장별 관리에서 최근에는 제품별로 전개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LG화학도 이 추세에 따라, 지금까지 환경안전 관계자 위주로 운영되어 온 전사환경안전위원회를 개편해서 본사부문의 사업본부, 지원부문도 함께 참여하는 전사 RC위원회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회사 전 경영에 걸쳐 환경·안전·보건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사업장에서도 각각 규모와 특성에 맞춰 RC 위원회와 코드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김영찬 :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원 : 'Responsible Care' 라는 표기 자체가 영문이고 개념 또한 쉽지가 않아서 직원들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안전 · 환경 · 보건에 관해 다양한 시스템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옥상옥(屋上屋) 식의 시스템 도입이라는 거부반응이 일부에서 제기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의식전환(CHANGE MIND)에 주력하면서 특히 노동조합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노사공조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사 차원의 Responsible Care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창희 : Responsible Care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Cycle이 순회되고 나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하나는 환경 · 안전 · 보건의 통합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Peer Review 때에는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회사가 사례를 발표하여 좋은 벤치마킹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최규동 : 저희도 사장님과 공장장 등 경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아직까지는 실무 차원에서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RC를 도입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찬 : 보편적으로 Responsible Care는 Top-Down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Responsible Care 추진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회원사는 최고경영자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회사에서 RC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건상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 많은 실정입니다. 조기에 RC를 정착시키고 있는 회사의 코디네이터로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최규동 : Responsible Care를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사항들로는 우선, 최고경영자와 관리감독자가 Responsible Care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Responsible Care와 기존 환경 · 안전 · 보건 시스템의 연계 방법을 고려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이어서 교육과 홍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Responsible Care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환경 · 안전 · 보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Responsible Care와 접목시켜서, Responsible Care 수행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때에 해당 사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행성과를 측정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Responsible Care 실행을 기존에 사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과 별도의 것으로 인식하면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창희 : KRCC가 Responsible Care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최고경영자의 기본방침에 대한 서명부터 시작 하듯이,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Responsible Care 성공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따라서 코디네이터는 최고경영자가 Responsible Care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 구성원에게 RC를 인식시키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 두 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RC는 단순한 안전환경관련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라운드의 환경경영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Responsible Care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주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먼저 추진 담당자는 이러한 관점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최고경영자가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하여 가능한 조속히 도입 ·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과...

김영찬 : 작년 11월에 대림에서 회원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임직원 대상의 Responsible Care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여러 회원사 사업장에서 Responsible Care 설명회나 Kick-off 회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교육설명회를 통해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원 : 최고경영자를 포함해서 전 사업장의 임직원이 교육대상이 되어 Responsible Care에 대한 공감대가 효과적으로 조성될 수 있었고요, 특히 사장님과 회사의 핵심 경영 임원들이 모두 교육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Responsible Care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일정대로 비교적 순조롭게 Responsible Care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찬 : 한화석유화학의 경우 울산과 여수에서 Responsible Care 워크숍을 실시하셨는데요, 그때 워크숍을 타 회원사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개를 결정했던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규동 : Responsible Care는 화학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적인 운동이고, 또 자발적인 활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개별 화학회사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활동이라기보다, 화학업계와 화학관련 모든 회사가 화학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신뢰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Responsible Care의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방법이나 실천사례가 국내에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Responsible Care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정보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Responsible Care 도입과 정과 추진 경과를 회원사간에 공유하고자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임직원 대상의 Responsible Care 교육을 대외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작년 하반기에 사업장에서 작성한 코드별 자체평가표도 모든 회원사들이 참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KRCCC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김영찬 : Responsible Care 추진과정에서 다른 회원사와 화학산업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최규동 :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공개 활동을 통해 한화석유화학의 추진 사례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Responsible Care 추진과정을 개선하여 성공적으로 Responsible Care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김영찬 : LG화학은 KRCCC 회장사라고 하는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Responsible Care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Responsible Care 추진을 통한 전략적인 효과도 충분히 고려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Responsible Care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창희 : Responsible Care의 목적은 화학산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자는 것입니다. LG화학의 추진 목적도 친환경안전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Responsible Care가 정착, 발전됨으로써 저와 같이 환경안전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회사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점...

김영찬 : 끝으로 Responsible Care 추진에 있어 특히 역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승원 : 기존 안전환경관련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이 그 실행효과에 대한 검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Responsible Care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도 도입 시행으로 기대되는 성과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업의 경쟁력이 중요시되는 흐름 속에서 Responsible Care 도입에 따른 인력 및 비용 부문의 투자가 그에 상응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Responsible Care의 성공적인 구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는 그 실행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조직이나 문서 시스템을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운영상의 편이성과 기존 시스템과의 적합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축함으로써 성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규동 : 원활한 Responsible Care 수행을 위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누구나 같은 시각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평가(작성)된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장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시스템의 level up, 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창희 : 올해는 Responsible Care를 운영하는 첫해로서, 우선 Responsible Care에 대하여 전 구성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 점에 역점을 둘 예정이고, 또 Responsible Care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자는 실행력 제고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찬 : 오늘 세 분께서 해주신 좋은 말씀이 Responsible Care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 회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8월말 한국RC협의회 실행지침 4개 코드 완성 후 회원사에서는 조직구성, 실행계획 수립 등 RC 실천을 위한 검토와 준비를 추진 중이다. RC를 사업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뛰고 있는 회원사의 소식을 전한다.

효성 용연2공장 RC추진발대식 개최



■ 효성(TPA PU 사장: 조장래) 용연2공장은 1월 29일(화) 공장 강당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RC활동계획을 공유하고 환경, 안전,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RC 실천을 다짐하는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조장래 사장은 RC에 대한 전 직원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 신승부 원장, 한국가스안전공단 박장식 부장 등의 격려사가 있었다. 효성 용연2공장은 이번 발대식에 이어 2002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환경친화사업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공장 내 잠재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안전체계화 미흡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여 RC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화석유화학 RC워크샵 및 Kick-off meeting



■ 한화석유화학(대표이사: 신수범)은 지난 1월 29, 30일 양일간 울산공장과 2월 28일 여수공장에서 공장장, 사업장 환경안전팀장, RC추진담당자, 사업장 관리감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Responsible Care의 효율적인 도입과 적용을 위한 workshop” 및 “전사 RC 추진을 위한 kick-off meeting”을 개최하였다. 특히 울산공장의 Workshop은 RC 관련 교육을 필요로 하는 울산공단 및 타지역의 화학회사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공개적으로 개최되었다. 한화석유화학은 전사 RC 운영위원회를 축으로 각 사업장별 RC 운영위원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사 RC 추진계획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RC를 실행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과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호피앤비화학 RC추진워크샵 개최



■ 금호피앤비화학(대표이사: 김태환)은 지난 3월 27일 여수 1공장 강당에서 “RC 도입을 위한 Workshop”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샵의 목적은 RC 기본 개념에 대한 교육과 전 직원의 자발적인 RC 실천을 결의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장 및 부서장, 일근자, 금호석유화학, 금호미쓰이화학 등에서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 권혁진 지사장 격려사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여수지도원 강순중 원장의 축사(안전보건지원팀 안병준 부장 대독)가 있었고, 한국RC협의회 김영찬 팀장이 RC 도입 배경 및 현황을, 바이엘코리아 김범 이사가 RC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강연하였다. 코디네이터인 진수익 환경안전팀장은 금호피앤비화학의 RC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교육참석자 전원이 RC 참여를 결의, 서명하였다.



금년도 사업장의 RC 적용과 실천을 앞두고 사무국에서는 각 사의 조직구성과 실행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4분기 현재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실행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조직구성과 평가기준 작성, Kick-off 회의나 워크숍을 통한 교육 등 RC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시작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회사는 총 64개 일반회원사 중 약 20개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먼저 시작한 회사들을 모델로 한 벤치마킹이 여러 사업장에서 이어지고 있어 회원사의 RC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도 기대 목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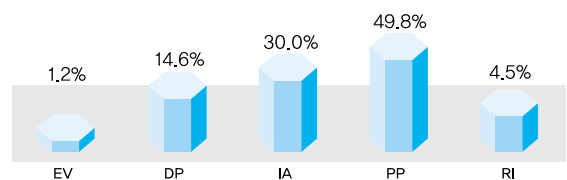
■ 코드별 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묻는 기대목표에서 평가기준을 작성, 제출한 17개 회원사 19개 사업장의 2002년도 코드별 기대 수준은 올해가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IA와 PP 단계에 집중되어, 금년 안에 각 실행지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공정안전 코드의 경우는 절반 가까이의 사업장에서 PP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ISO 시리즈를 비롯한 여러 환경·안전·보건 관련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온 데 따른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행지침별로도 대부분 PP 단계를 기대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내용 면에서 볼 때 전사 임직원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필요한 지침의 경우 보다 낮은 단계를 목표로 하는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성, 영향 평가, 목록에 관해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교육할 것을 요구한다든지(오염방지 코드 중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대화 지침), 근로자나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이 요구되는 내용에서는 IA 단계가 많이 나타났고, 그 외에 지하수 오염원 관리나 운송관련 비상대응등의 실행지침도 다소 낮은수준의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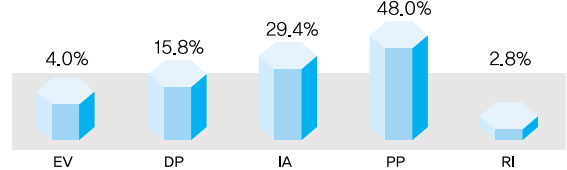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기대수준이 사업장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평가를 기초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RC 실행 첫해인 올해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실행지침의 적용과 실행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장의 목표 수준은 점차 현실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EV : 회사의 실행계획 검토조사 중(Evaluating)
DP : 실행지침의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중 (Developing)
IA : 실행계획을 실시 중 (Implementing)
PP : 실행지침이 회사의 일상업무로 정착 (Practice-in-Place)
RI : 실행지침의 실시에 관한 재평가 단계 (Reasses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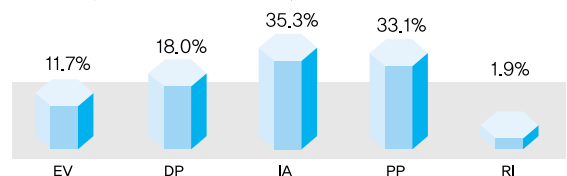
근로자의 안전보건(Employee Health and saf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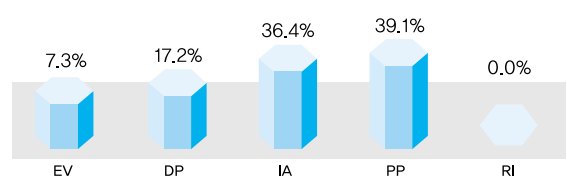
공정안전(Process Safety)



오염방지(Pollution Prevention)



비상대응(Emergency Response)



(2002. 3월말 현재 As of March, 2002)



본란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RC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 사례를 통하여 RC에 대한 이해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무순으로 회원사를 선정, RC 추진 내용과 경험을 계속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바이엘 코리아(주)

“책임을 다하는 전문기업”

■ 1863년 작은 염료회사로 출발한 바이엘은 독일 라인강변에 위치한 레버쿠젠에 본사를 두고 세계 15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약 및 화학 회사이다. 설립 이후 140여년간 과학 및 응용분야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의약사업에서 농약, 동물의학 그리고 폴리머에서 화학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는 1955년에 작물보호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하여 아스피린으로 잘 알려진 제약사업 이외에 동물약품, 농약, 폴리머 및 화학사업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한국경제의 발달에 동참해 왔다. 현재 한국 내 바이엘 그룹에는 바이엘 코리아를 주축으로, (주)미성, 바이엘세원(주), 바이엘 진단사업(주)의 4개의 회사에 약 670명이 종사하고 있다.



김 범 Kim Bum,
Responsible Care Director

바이엘 본사의 Responsible Care활동

■ Responsible Care(RC)의 자발적이며 윤리적인 이념과 일맥 상통하는 “책임을 다하는 전문 기업(Expertise with Responsibility)”이란 바이엘의 사훈은 직원 각자가 RC 활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정신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

바이엘의 환경·안전·보건활동의 역사는 1901년 조직된 “폐수위원회(Wastewater Commission)”로 부터 시작되는데,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훨씬 이전에 산업화에 따른 라인강 오염 방지책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100여년의 전통은 바이엘이 RC 활동을 통해서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가지게 되고, 오염물질 배출량의 공개 및 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바이엘은 RC활동이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세계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여정이라는 인식하에, 본사는 물론 바이엘이 진출해있는 각 국가들의 RC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바이엘 코리아의 Responsible Care활동

■ 바이엘 코리아에서 이런 RC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8년 5월부터였으며, 여기에는 바이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품질·환경·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 반 린트박사(Dr. Chris Van Lint)의 적극적인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 반 린트 박사는 이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RC활동을 위한 세계적 모임인 RCLG(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에 가입하는데 도움을 준 경험을 바탕으로 KRCC(Korea Responsible Care Council)설립과 RCLG가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다.



화학산업전체가 대중의 관심과 신뢰를 얻고자 하는 목표아래, 바이엘 코리아는 1998년 7월1일 Responsible Care 부서를 신설한 이래로 지금까지 회사 자체적인 활동 보다는 오히려 KRCC의 설립, RCLG가입, APRCC(Asia-Pacific Responsible Care Conference)한국유치, RC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대외적인 활동들은 각자의 차를 만들기 전에 그 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한편 RC부서는 직원들에게 생소한 개념인 RC를 인지시키는 것을 회사 내부적인 RC활동의 첫째 목표로 삼아, RC실행지침을 도입하기 전 문화적인 토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하였다.

RC활동의 성공적인 실행 및,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전개 하기 위해서는 기업 구성원들간은 물론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산업계 · 정부 · 학계 · 지역사회 등 집단간에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환경 · 안전 · 보건에 대한 기업 구성원 각자의 올바른 행동을 문화적으로 실행하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1. Responsible Care 교육활동

• Bayer Korea Academy for Responsible Care

바이엘 코리아는 전 직원에게 환경 · 안전 · 보건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산업계 · 교육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Bayer Korea Academy for Responsible Care' 라는 사내대학을 2000년 6월 27일 부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 바이엘 코리아 아카데미는 환경 · 안전 · 보건 분야는 물론, 응급처치교육을 비롯한 실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교육활동은 일방적인 교육내용의 전달만이 아닌 직원들 및 고객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교환을 위한 상호의사소통의 도구로서도 활용하고 있다.



아카데미 개원식(Opening Ceremony)

• Responsible Care Awareness Campaign



Sign Board

RC활동은 환경 · 안전 · 보건에 관련된 직원들에게 국한된 활동이 아닌 회사의 최고책임자를 비롯한 신입사원까지 전사적으로 동참해야 할 활동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하여 환경 · 안전 · 보건 담당 임원이 직접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대일 만남을 가져서 RC의 기본 취지 및 자신의 영역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예시를 제시하고 직원 각자의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얻은 활동이다. 이 활동은 2001년 1월경 시작되었으며, 개인 면담을 통하여 지금까지 약 600명에 이르는 직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런 꾸준한 활동은 이제는 신입 사원 필수 교육으로 자리잡았으며, 전 직원들은 각자가 인사, 총무, 회계, 감사, 영업부등 본인의 업무에서 적용하여 문화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 Bayer Korea Academy Forum

환경 · 안전 · 보건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이엘 코리아 아카데미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개최된 이 포럼은 바이엘 코리아의 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 · 협력 회사 및 동종업체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업계와 학계 · 공공기관 및 정부 담당자가 참여, 산업계의 환경 · 안전 · 보건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본사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대하여 주제강의 및 지정 토론을 듣고 난 후 모든 참석자의 참여하여 토론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Bayer Korea Academy Forum을 통하여 산업계의 환경 · 안전 · 보건에 대하여 자유롭고 수준 높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 Responsible Care 내부 활동

• 점진적인 개선 활동 (SIP: Steady Improvement Process)

SIP은 바이엘 세원(株)에서 시작하여 한국 바이엘 그룹 전체로 보급된 활동으로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여 2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환경 · 안전 · 보건에 관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개선대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이다. 회사의 의사결정자가 참여한 모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동의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책임자 및 실행기한을 정하며, 실행 후에는 개선 전 후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근무 환경을 환경 · 안전 · 보건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을 키운다. SIP활동의 특징은 매우 소박하고 간단하여 누구라도 쉽게 사진 한 장만 가지면 개선제안을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RC활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RC내부활동의 하나이다.

• 사무공간에서의 안전활동 (SAW : Safety at Work)

바이엘 코리아 의약품 사업부에서는 분기별로 전 직원들이 일제히 정리 정돈의 시간을 갖고 난 후 사업부 전무의 주관으로 총무부와 함께 사무공간의 안전 및 문서보안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열기기의 사무실 내 방치, 동선공간의 전기코드, 커놓은 컴퓨터, 방치된 서류, 잠그지않은 서류장 등 설마 이런 것 까지야 라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 까지도 사진으로 찍어 부분별 평가 점수와 함께 통보한다. 이 활동은 '의약품 사업부는 RC활동과 무관하다거나 공장도 아닌 사무공간에서 무슨 RC 활동이 필요한가' 라는 소극적인 의식을 경계하며 실질적으로 전 사원이 참여하는 RC내부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 소방활동

바이엘 코리아 서울 본사에서는 매년 두 차례씩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무실 공간내의 모든 창고를 CEO가 수시로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물건 또는 모든 화학 SAMPLE의 보관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등 사전 화재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1년 10월12 일에는 동작소방서, 당사가 입주해있는 삼성보라매오피스타워의 관리사무소 및 다른 입주사들과 함께 재난 대비 긴급 구조 종합훈련을 실행하였다. 이 훈련에서 직접 소화기 사용법과 들 것을 이용한 골절응급 환자를 처치하는 시범을 보여 실질적인 훈련을 하였고, 이 소방활동은 전 직원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엘에 방문하면 모든 회의실에서 비상 대피도를 보고 화재 시 대피요령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된다. 또 바이엘 코리아 본사 모든 전화기의 다이얼 “8”번을 누르면 화재통보를 할 수 있다.



3. Responsible Care 외부 활동

• Outreach Program for School Children

화학산업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인식을 문화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 봉사 차원에서 시작된 Outreach Program은 현재까지 성남시와 서울시의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정기적인 활동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2000년 4월부터 성남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본사에서 파견된 원로 박사가 진행하는 이 Outreach Program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여 각종 흥미로운 과학 실험을 보여주어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실험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양면성을 보여주어 화학물질을 부주의로 잘못 다루거나 소홀히 하면 안전보건환경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또한 실험복 및 적절한 실험보호구의 착용으로 가시적인 안전의 중요성을 보여주어서 어렸을 때부터 안전문화를 습관화하도록 교육한다. 약 1시간정도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실험실 교사와 초등 학생들의 실험보호장구를 기증하고 있어 과학 선생님들의 안전의식을 재고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Bayer Korea의 앞으로의 RC활동

■ 이상과 같이 열거한 바이엘 코리아의 RC활동이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정착하고 더욱 발전하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또한 적극적인 정보교환의 자리를 마련하여 현재 바이엘이 하고 있는 활동들 및 RC 회원사들의 우수사례를 모아서 화학업계의 연대활동으로 전개함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